

대한위생학회

국제환경보건회의



대한위생학회(회장·조윤승)는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환경과 보건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지난 10월 9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국제환경보건회의-지구적, 지역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J.F.Bertaux WHO 주한미대표의 「지구환경보건 문제와 새로운 대응방안」에 관한 기조연설을 비롯 수질관리 및 처리, 환경오염 및 방지기술, 환경보건, 자연보호 등 5분과위로 나눠 진행되었다.

환경관리연구소

폐기물처리 기술세미나



환경관리 연구소(소장·이용운)는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 고도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함을 인식, 지난 10월 17-18 양일간 영등포 YMCA 강당에서 폐기물 처리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세미나에는 환경관리연구소 임무창실장의 「폐기물 일반 및 처리」, 김오식 산업안전관리공단 유해물질과장의 「소각매립」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사)전국자가측정대행자협의회

측정분석 정도 향상세미나



환경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관리의 지표가 되는 오염물질 측정분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0월 8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자가측정대행자협의회(회장·박만득)주최로 열렸다.

2백여명의 환경관계인이 참가한 동세미나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광우박사의 「측정분석 정도 관리 향상 방안」, 등 측정분석 전반에 관한 논의가 발표되었다.

환경라이온스클럽

자연보호 캠페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09(한국)-A지구 소속의 환경라이온스클럽(회장·김성훈)은 단풍 행락철을 맞아 유명관광지가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5일 충남 칠갑산 도립공원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진 캠페인에서 동클럽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와 등산객 대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물 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환경처

환경마크대상품목 공청회

환경처(장관·이재창)는 금년 6월부터 시행된 환경마크 대상품목의 지정과 관련, 이의 확대 및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지난 10월 30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처 김인호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계속된 동공청회에서 환경보전협회 최홍식 사무총장의 「환경마크제도 시행 현황」, 생산기술연구원 황규원 기술역의 「환경마크 대상품목 제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동아대학교

특정폐기물 적정관리

동아대학교(총장·이태일)는 지난 10월 29-30 양일간 해운대 한국콘도미니움 크리스탈볼룸에서 「특정폐기물 적정관리와 상수처리」를 주제로 제8회 환경기술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특정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동세미나에서 동아대 김수생교수의 「한국에서 특정폐기물 및 고도상수 처리 과제」를 비롯 다수의 특정폐기물 처리 해결방향 모색 및 기술향상을 위한 주제논문이 발표되었다.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지도자교육 입교식

환경공무원교육원은 지난 10월 27일 동교육원 대강당에서 92년도 제1기 「환경보전 실천 운동 지도자과정」 입교식을 가졌다.

이 교육과정은 국내 민간사회단체의 중견간부 및 회원과 환경관련 여성단체, 연구소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간주도 환경보전운동의 확산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제1기 교육에는 19개 민간단체 및 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간부 및 중견인사 1백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국립공업기술원

합성세제 관련 국제회의

국립공업기술원(원장·최성규)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합성세제의 품질수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국·일본 등 해외선진국과 비교,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는 국제학술회의를 지난 10월 21일 롯데월드 호텔에서 가졌다.

연세대 권숙표교수의 「합성세제와 환경 및 인간」, 미국비누세제협회 BOOMAN박사의 「미국에 있어서의 세제의 환경영향과 안전성에 관한 대응방향 및 2천년대 개발 전망」 등 각국 대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환경과학회

'92년 추계 학술 발표회

한국환경과학회는 지난 10월 9-10일 이틀간 경상대 과학관에서 경상대 환경보전연구소 후원으로 1992년도 가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연세대 정용교수의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와 방향」, 인제대 한돈희교수의 「석회, Fly Ash 및 벗짚재가 토양에서 무우로 이행 축적되는 카드뮴과 납의 함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의 특별강연에 이어 충북대 박주영교수의 「교란된 조간대 해조군집의 재형성 과정」, 부산대 이종근교수의 「난분해성 치환제 폐기물의 분해」 등 다수의 주제논문 발표가 있었다.

제시판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소장·김윤신)는 대기분진중 PM_{10} 의 미국내 설치기준 배경과 연속측정장치의 전시 및 측정방법의 설명을 위한 워크샵을 11월 12-13일 양일간 한양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유독화학물질과 특정폐기물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기술, 경제적 수단 등의 기반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을 지난 '91년 3월부터 시행한 결과 다가오는 12월 4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 종결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대기보전학회

제15회 대기보전 학술대회

한국대기보전학회(회장·이용근)는 한국기상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30~31일 양일간 전남대에서 제15회 대기보전 연구 및 학회간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동세미나에는 한국기상학회의 「지구환경문제 중 공동 관심 주제」를 비롯, 강원대 김태우교수의 「춘천지역의 도시열섬 관측과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대 강동근교수의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주제논문이 발표됐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다중연결보의 진동해석

(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회장·박철희)는 한국음향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3일 한양대 박물관세미나실에서 소음·진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세미나에서 울산대 김도중교수의 「자동차용 고속 벨브트레인의 독특성 및 최적설계」, 홍익대 이현엽교수의 「석유시추공에서 저주파 음향의 전달」, 해사기연 김현실박사의 「다중 연결보의 진동해석」 등의 주제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연합회 고문

이승무·홍사옥박사 서울시문화상 수상

▶ 이승무 연세대 교수, 홍사옥 수질보전학회 회장(좌로부터)은 지난 10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제41회 서울시 문화상 시상식에서 12개분야 중 기초과학과 생명과학 부분에서 각각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시문화상은 서울시 향토 문화발전에 공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상되고 있다.

국제지구총협회 한국본부

제2회 환경세미나

국제지구총협회 한국본부(회장·김종득)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후원으로 21세기에 새로이 부상한 사회복지와 환경보전을 주제로 지난 10월 24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제2회 환경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림대 한림과학원 이두호교수의 「지구환경의 오염 실태와 대책」 주제발표 외에 연세대 정용교수의 「화학 물질과 환경문제」, 숭실대 도갑수교수의 「폐기물과 환경문제」,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 조강래소장의 「자동차 배기ガ스와 환경문제」 등이 발표되었다.

환경과 공해 연구회

제7기 환경학교 개설

환경과공해연구회(회장·김정욱)는 환경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시각정립을 위해 지난 10월 12일~11월 5일 동화 사무실에서 제7기 환경학교를 개설하였다.

동기간내 매주 월·목요일 개설된 환경학교는 동화 김회장의 환경오염 쟈론을 비롯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환경생태, 에너지와 환경, 환경정책, 환경운동등의 교육이 각 전문가들에 의해 강의되었다.

